

플랫폼 시대 한국 영상물 IP 배분과 동태적 효율성: 코즈 정리 관점의 분석

배제현 (한양대학교 재무금융학과, 박사과정)*

윤민섭 (숭실대학교 금융학부, 겸임교수)**

강형구 (한양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국 문 요 약

본 연구는 글로벌 OTT 플랫폼 중심 계약구조에서 초기 IP 귀속 방식이 한국 영상물 산업의 동태적 효율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한다. 여기서 산업 효율성은 정태적 효율성이 아니라 동태적 효율성으로 한정하며, 이를 창작자 기대 소득, 후속 IP 수익 회수 가능성, 제작사 자산 축적, 차기 프로젝트 재투자 가능성으로 구체화한다. 연구 방법으로는 프랑스의 AVMS 기반 규제 모형, 한국 음악산업의 집단 관리 모형, 한국 영상물 시장의 OTT 중심 권리지중형 계약구조를 비교하는 개념적·비교 사례 분석을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거래비용과 협상력 비대칭이 큰 플랫폼 환경에서는 초기 권리 귀속이 사후 협상만으로 쉽게 교정되지 않으며, 권리 환원 장치, 집단협상 구조, 후속 수익 회수 경로가 열려 있는 제도가 창작자 인센티브와 제작사 자산 축적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조건을 제공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는 코즈 정리를 직접 검증하려는 것이 아니라, 플랫폼 환경에서 코즈적 협상이 실패하는 조건과 이를 완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비교분석의 틀로 제시한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 영상물 산업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논의한다.

핵심 주제어: 코즈 정리, 지식재산권, 거래비용, OTT 플랫폼, 수익배분, 동태적 효율성

1. 서론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 게임>은 세계적 흥행으로 넷플릭스에 약 1조 원의 수익을 안겨주었지만, 정작 한국 제작사에 돌아간 수익은 20억 원 수준에 불과했다(Kim, 2023). 글로벌 OTT 플랫폼의 등장으로 한국 영상물 제작 구조에는 큰 변화가 나타났다. 넷플릭스를 비롯한 거대 스트리밍 플랫폼들은 막대한 제작비를 투자하는 대가로 IP를 비롯한 모든 권리를 독점하는 계약을 맺고 있으며, 한국 창작자와 제작사는 초기 IP 귀속 및 후속 수익배분 구조에서 제한된 협상 지위에 놓이는 경향이 있다. 이와 같은 계약구조는 플랫폼으로서의 수익 집중을 강화하는 반면, 제작사의 후속 판권 활용 가능성을 제한할 수 있다. 특히 창작 유인, 후속 수익 회수, 제작사 자산 축적과 같은 동태적 효율성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한데, 이하에서 말하는 산업 효율성은 창작자 기대 소득, 후속 IP 수익 회수 가능성, 제작사 자산 축적, 재투자 가능성 등으로 한정된다.

플랫폼 경제에서 생태계 구성원이 플랫폼 소유자와의 관계에서 경험하는 권력 비대칭은 플랫폼의 경제적·기술적 아키텍처에 구조적으로 내재된 것으로(Cutolo & Kenney, 2021), 스트리밍 플랫폼 역시 소수의 선도 기업과 다수의 콘텐츠 공급자 사이에 지배구조 문제를 야기하는 권력 비대칭이 존재한다(Chalaby, 2024). 기존 선행연구들은 넷플릭스의 한국 드라마 산업 구조 재편(Park et al., 2023; Jin, 2017)이나 OTT 플랫폼의 디지털 주권을 분석해 왔으나(Tambini, 2025), 초기 IP 귀속 구조의 차이가 창작자 기대 소득 및 제작사 자산 축적, 재투자 가능성 등 동태적 효율성의 조건에 어떠한 제도적 영향을 미치는지 비교 분석한 연구는 아직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글로벌 OTT 중심 계약구조에서 초기 IP 귀속 방식이 왜 사후 협상을 통해 쉽게 교정되지 않는지, 그리고 그러한 권리 배분 구조의 차이가 창작자 기대 소득, 후속 IP 수익 회수 가능성, 제작사 자산 축적 및 재투자 가능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계량적 인과 추정 연구라기보다, 거래비용과 재산권 보호 구조의 차이가 IP 귀속과 동태적 효율성의 조건에 미치는 영향을

* 제1저자, 한양대학교 경영학과, 박사과정, nubae2277@gmail.com

** 공동저자, 숭실대학교 금융학부 겸임교수, eandp@hanmail.net

*** 교신저자, 한양대학교 파이낸스경영학과, 정교수, hyoungkang@hanyang.ac.kr

· 본논문은 학술논문의 재사용과 관련하여 CC BY-NC(저작자 표시·비영리)라이선스에 따라 저작자 및 출처를 표시하여 비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저작물을 변경하거나 이용하여 2차적저작물을 만들 수 있습니다.

· 투고일: 2026-03-09 · 1차 수정일: 2026-04-07 · 2차 수정일: 2026-04-19 · 게재확정일: 2026-04-30

검토하는 개념적·비교 사례 연구이다. 비교 대상은 프랑스의 AVMS 기반 규제 모형, 한국 음악산업의 집단관리 모형, 그리고 한국 영상물 시장의 OTT 중심 권리집중형 계약구조이다.

본 연구의 기여는 코즈 정리를 현실 설명의 완결된 이론으로 적용하는 데 있지 않다. 오히려 플랫폼 중심 창작 산업에서 코즈적 협상이 성립하기 어려운 조건을 밝히고, 그러한 조건 속에서 초기 IP 귀속 구조가 왜 중요한지를 비교분석 틀로 제시하는 데 있다. 이하에서는 먼저 코즈 정리, 거래비용, 재산권 보호 원칙과 손해배상원칙을 이론적으로 검토한 뒤, 사례 선정 논리와 비교기준을 제시하고, 세 사례의 비교를 통해 한국 영상물 산업에 대한 제도적 함의를 도출한다.

II. 이론적 배경

코즈 정리는 거래비용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적 시장을 가정하여 역설적으로 현실의 비효율이 거래비용에서 발생함을 시사한다. 즉, 이상적 조건 하에서 시장을 통한 자원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이론적 기준점을 제시하되, 실제 시장에서는 거래비용과 권력의 비대칭성이 상존하며 현실의 자원배분이 제도 설계와 권리 구조에 크게 의존하게 됨을 강조하는 것이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협상의 이상과 거래비용의 현실이라는 이분법적 틀을 통해, 창작자와 플랫폼 간의 IP 협상 구조가 지닌 구조적 제약을 이론적 배경과 함께 우선적으로 고찰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주요 개념을 먼저 정의한다. ‘IP 귀속’이란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및 관련 재산권이 법적으로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를 의미하며, ‘IP 배분’은 계약 또는 제도를 통해 그 귀속 주체를 결정하는 과정을 가리킨다. ‘권리 귀속’은 저작권 외에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배포권, 리메이크권 등 파생적 권리의 귀속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 사용한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개념적 토대 위에 코즈 정리, 거래비용, 재산권 보호 원칙을 이론적으로 검토한다.

2.1. 코즈의 정리

코즈의 정리란 거래비용이 ‘0’이고 재산권이 명확히 지정되어 있을 때, 외부효과가 있는 자원이라도 이해당사자 간의 자발적 협상이 이루어지면 최초 권리 배분과 무관하게 자원이 효율적 배분에 도달한다는 이론이다(Coase, 1960; Farrell, 1987; Medema, 2020).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러한 이상적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가 드물다. 코즈도 직접 언급했듯이, 거래비용이 크거나 이해당사자가 많으면 협상이 원활히 이루어지기 어렵고 정보의 비대칭성과 협상력의 차이로 효율적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이다(Coase, 1960). 특히 한쪽 당사자가 시장지배력이나 일방적 우위의 협상력을 갖고 있다면 초기 권리 배분에 영향을 받으면서, 협상의 결과는 효율적 최적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플랫폼 시장의

협상력 불균형이 여기에 해당하는 사례다. 본 연구에서 코즈 정리는 플랫폼 산업을 직접 설명하는 완결된 이론이라기보다, 거래비용이 낮고 재산권이 명확할 때 기대되는 효율적 권리 배분의 기준점으로 사용된다. 본 연구의 관심은 이러한 기준점이 플랫폼 중심 영상물 산업에서 왜 성립하지 않는지, 그리고 어떠한 제도적 장치가 그 간극을 완화하는지를 비교 사례를 통해 검토하는 데 있다.

2.1.1. IP(지식재산권)에의 이용

미국 저작권청(U.S. Copyright Office, 2025)에 따르면, IP 권리란 쉽게 복제될 수 있는 저작물에 대한 무단 사용을 방지하고 창작자가 투자를 회수할 수 있도록 국가가 설정한 메커니즘이다. 코즈 정리의 핵심은 재산권이 명확하게 정의된 자원이 사적 협상을 통해 가장 가치 있는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를 IP 권리에 적용해 보면, 명확한 IP 권리는 효율적인 라이선싱과 창작 생산성을 촉진할 수 있다(Medema, 2020). 그러나 거래비용이 ‘0’이라는 코즈의 가정은 복잡한 IP 권리 구조, 예컨대 가치평가의 어려움, 정보 비대칭성, 권력 불균형이 특징인 창작 산업에서는 대부분 충족되지 않는다. 즉, 코즈 정리의 이상적인 조건인 0에 가까운 거래비용과 완전한 정보 대칭성은 창작 산업의 본질적 특성과 근본적으로 어긋나는 것이다. 창작물은 독특하고, 사전 시장 가치는 불확실하며, IP 권리는 복잡한 법적 구성물인 상황이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창작 산업과의 본질적인 특성으로 인해, 거래비용이 0일 때 초기 권리 배분이 효율성과 무관하다는 코즈의 명제는 현실에서 기각되며 오히려 IP 권리의 초기 배분이 시장 결과와 협상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기존 연구는 벤처기업의 지식재산권 확보가 기업의 매출 및 영업이익 등 경영 성과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침을 실증해 왔으며(김상국·이재석, 2021), 특히 초기 기술창업 기업의 경우 특허 활동이 기업의 생존과 성장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이 확인된 바 있다(이형모 외, 2012).

2.1.2. 재산권 보호원칙(PR)과 손해배상원칙(LR)

재산권 보호의 법적 원칙을 PR과 LR로 구분하는 분석 틀은 Calabresi & Melamed(1972)의 고전적 연구에서 체계화되었다. 이들은 거래비용이 낮을 때는 재산권 보호원칙(Property Rule, 이하 PR)이, 거래비용이 높을 때는 손해배상원칙(Liability Rule, 이하 LR)이 사회적으로 선호됨을 제시하였으며, Hylton(2006)은 주관적 가치평가와 협상 유인을 고려할 때에도 이 명제가 여전히 유효함을 확인하였다.

이성섭(2003) 역시 재산권 보호의 법적 원칙을 PR과 LR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PR은 재산권자의 사전 동의 없이는 권리 침해가 불가능한 체제인 반면, LR은 사후적인 보상 협상을 전제로 사실상 권리 사용을 허용하는 체제에 가깝다. 현재 글로벌 OTT 플랫폼과 제작사 간의 ‘제작비 전액 투자-IP 전량 양도’ 계약 구조는 경제학적 관점에서 ‘사실상의 LR 체제’

로 작동하고 있다. 플랫폼이 정품 가격 수준의 제작비와 일정 마진만을 지급하고 IP를 독점하는 것은, 권리 침해자가 통상적인 대가만을 지불하고 재산권을 강제 취득하는 것과 유사한 결과를 낳기 때문이다. 이성섭(2003)의 논의는 PR에 보다 가까운 권리 구조가 창작자 기대 소득과 채투자 가능성에 어떠한 조건을 제공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본 연구는 PR과 LR에 대한 논의를 초기 IP 배분 구조가 창작자와 제작사의 장기적 인센티브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는 이론적 기준으로 활용한다.

2.2. 거래비용

위와 같은 PR 체제의 확립을 저해하는 핵심 요소는 거래비용이다. 글로벌 OTT 플랫폼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거대한 시장 규모와 자본력을 바탕으로 콘텐츠 공급자에 대해 막강한 구매력(buying power)을 행사한다. 반면에 다수의 국내 제작사와 창작자는 개별적으로 플랫폼과 교섭해야 하므로 집합행동의 어려움과 교섭력 측면에 있어서 상대적 열세에 처해 있다. 이는 거래비용 관점에서 볼 수 있는데, 거래비용(Transaction Costs)이란 재화나 서비스를 시장에서 교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시장 실패와 경제 성과를 이해하는 핵심 변수로 간주된다(Williamson, 1981; North, 1990; Allen, 1991). 주목할 점은 개별 라이선스의 가치에 비해 거래비용이 높으면 효율적인 IP 거래에 상당한 장벽으로 작용한다는 점이다(U.S. Copyright Office, 2025). 이는 개인 창작자나 소규모 기업에게는 더욱이 불리하게 작용하는데, 이러한 거래비용 문제는 음악 스트리밍 산업에서도 동일하게 관찰된다. 개별 창작자는 스트리밍 플랫폼과 직접 거래할 경우 거래비용이 과도하게 높아지므로, 실질적으로 모든 창작자가 집단관리기구나 음반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플랫폼과 접점을 형성하게 된다(Towse, 2020). 나아가 플랫폼이 참여자에 대해 거의 독점적 지위를 보유하는 구조에서는 대안적 유통 경로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아 창작자의 협상 여지가 극히 제한되기 때문이다(Cutolo & Kenney, 2021).

또한 거래비용에는 정보비용이 포함되는데, 글로벌 OTT 플랫폼은 시청자 선호도 및 콘텐츠 성과 등 개별 창작자나 지역 제작사가 가지고 있지 못한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 비대칭성으로 인해 창작자는 IP 권리 매수 협상의 과정에서 본인이 가진 IP에 대한 잠재적 미래 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하기 어려우며, 플랫폼은 더 나은 조건을 설정할 수 있는 강력한 우위에 있게 된다. 이는 거래비용으로 인한 시장 실패의 전형적인 형태이며, 수많은 창작자가 글로벌 플랫폼과 협상해 권리를 되찾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그러나 장기적인 시각에서는 플랫폼 측에도 창작자의 창작유인을 저해하고 콘텐츠 공급 기반을 약화시키는 이러한 협상 구조가 결국 양측의 거래비용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

용할 수 있다. IP 시스템은 창작에 대한 인센티브로 일시적인 독점권을 부여하여 효율성을 증진 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플랫폼 구조가 창작자로부터 IP를 지속적으로 박탈해 가는 경우, 창작자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낼 독립적인 위험을 더 이상 감수할 필요가 없고 이는 산업군 자체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할 것이기 때문이다.

2.3. 플랫폼 시장의 협상력 불균형

원가 가산 방식은 제조원가에 일정한 이익을 더하여 주는 방식이며, IP 권리 이전 및 전속 사용 여부는 계약 방식에서 반드시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별도 사항으로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글로벌 플랫폼은 자본, 데이터, 마케팅 역량의 우위를 바탕으로 원가 가산 정산과 결합하거나, 별개 조건으로 IP 양도 또는 독점적 이용권을 요구하는 관행이 존재한다. 원가 가산 계약 시에 IP에 대한 적절한 이익률로 협상한 평가금액이 포함되어 있다면 다행이지만 핵심은 IP에 대한 리스크를 누가 부담하는가이다. Chalaby(2024)는 아마존, 넷플릭스 등 소수의 글로벌 스트리밍 플랫폼이 콘텐츠 가치사슬 내 가장 강력한 행위자로 기능하며 공급자에 대한 지배구조 문제를 초래한다고 분석하였다. 이는 플랫폼 소유자와 생태계 구성원 간의 권력 비대칭이 플랫폼의 경제적·기술적 구조에 내재된 것이라는 점(Cutolo & Kenney, 2021)과 맥락을 같이한다. 정보 비대칭성과 협상력 불균형은 창작자의 재정적 위험과 후속 수익 통제권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앞서 말한 코즈 정리의 협상 구조상의 비효율을 일으킴으로써 초기 권리 귀속을 크게 좌우하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대안적인 자금 조달이나 배급 옵션이 제한된 플랫폼 시장의 창작자들은 자신의 프로젝트를 제작하고 전 세계에 배급하기 위해 불리한 IP 조건을 수용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낀다. 창작자들이 이 IP 조건이 일부 그들에게 불합리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플랫폼 시장의 권력 집중이 핵심 IP 소유권 조항에 대해 협상의 여지가 없는 표준화된 계약 제안으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다(ECSA, 2025). 특히 비공개 협약(NDA)은 이러한 관행을 더욱 불투명하게 만들고 창작자들의 집단적 인식이나 조치 역시 방해한다. 결론적으로 현재 한국 영상물 시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IP에 대한 디폴트 권리를 누가 보유하느냐의 문제는 수익배분과 산업 가치사슬 전반의 선순환 구조를 저해하는 구조적 병목 현상으로 작용하고 있다.

종합하면, 플랫폼 시대의 IP 배분 구조는 단순히 권리의 귀속 주체를 둘러싼 법적 문제가 아니라, 거래비용, 협상력 비대칭, 위험 분담, 후속 수익 회수 경로가 결합하여 형성되는 제도적 메커니즘으로 이해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 네 요소가 초기 IP 귀속의 효과를 매개하며, 궁극적으로 창작자와 제작사의 장기적 인센티브 및 산업 내 채투자 조건을 규정한다

고 본다. 따라서 다음 절에서는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동태적 효율성의 하위 지표를 구체화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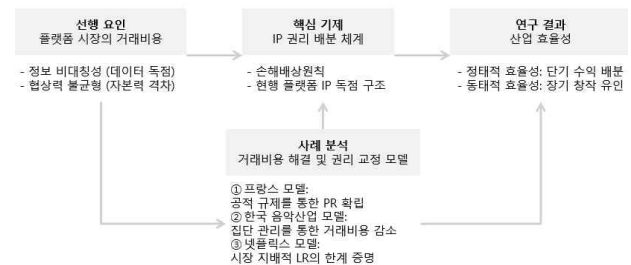
2.4. 동태적 효율성의 조작적 정의와 분석 기준

동태적 효율성은 정태적 효율성이 특정 시점의 자원배분 최적화에 초점을 두는 것과 달리, 시간의 흐름에 따른 혁신 인센티브와 창작 투자의 지속가능성을 중심 기준으로 삼는다(Landes & Posner, 2003). 저작권 및 IP 제도는 창작물의 현재 배분만을 정하는 장치라 아니라, 창작자가 선행 투자와 위험 부담을 회수하고 후속 창작을 지속할 수 있도록 유인을 제공하는 제도적 장치로 이해될 수 있다(Landes & Posner, 2003; Handke, 2016). 특히 창작 산업에서는 IP 권리 구조가 후속 창작의 비용, 기대수익, 라이선싱 가능성을 어떻게 배분하는지에 따라 창작 인센티브와 산업의 지속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다(Handke, 2016). 따라서 본 연구는 동태적 효율성을 플랫폼 계약구조가 장기 창작 인센티브와 산업 내 자본 축적에 미치는 영향을 포착하기 위한 다차원적 분석 개념으로 사용한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한국 영상물 산업의 동태적 효율성을 네 가지 하위 지표로 조작화한다. 첫째, 창작자 기대 소득은 IP 보유와 수익배분 구조가 창작자로 하여금 사전 투자와 창작 위험을 감수할 유인을 유지 시키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이다. 이는 플랫폼의 보상 모델이 디지털 콘텐츠 권리자의 실질 소득과 인센티브 구조에 영향을 미친다는 논의와 연결된다(Meyn et al., 2023). 둘째, 후속 IP 수익 회수 가능성은 작품의 2차 판권, 리메이크권, 재라이선싱 등 파생적 활용을 통해 최초 거래 이후에도 창작자와 제작사가 성과에 연동된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지를 의미한다. 이는 명확한 재산권 배분이 효율적 거래와 라이선싱의 전제가 된다는 코즈적 논의 및 IP 권리 구조가 창작 산업의 후속 인센티브를 형성한다는 논의와 연결된다(Medema, 2020; Handke, 2016).

셋째, 제작사 자산 축적 가능성은 IP가 일회성 용역수익으로 소멸하지 않고 제작사의 무형자산으로 축적되어 기업의 성장 기반이 될 수 있는지를 의미한다. 이는 벤처기업의 지식재산권 활동이 매출 및 영업이익 등 경영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김상국·이재석, 2021), 초기 기술창업 기업의 특허 활동이 기업의 생존과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연구(이형모 외, 2012)와 맥락을 같이한다. 넷째, 재투자 가능성은 창작자와 제작사가 후속 수익과 축적된 IP 자산을 바탕으로 차기 프로젝트의 개발비, 제작비, 금융 조달 능력을 확보할 수 있는지를 의미한다. 이는 저작권과 IP 제도가 현재 산출물의 보호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 창작 투자와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뒷받침한다는 논의와 연결된다(Landes & Posner, 2003; Handke, 2016). 따라서 본 연구에서 네 지표는 각각 분리된 성과변수라기보다, 초기 IP 귀속 구조가 거래비용, 협상력 구조, 위험 분담, 수익배분 구조를 통해 장기 창작 인센티브와 산업 내 재투자 선순환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구체화한 분

석 기준이다. 이후 사례 비교에서는 이 네 지표를 기준으로 각 제도 모형이 동태적 효율성에 제공하는 조건을 비교한다.



<그림 1> 연구의 개념적 틀

<그림 1>은 본 연구의 분석 체계를 도식화한 것이다. 본 연구는 플랫폼 시장의 구조적 결함이 초기 IP 권리 배분 방식과 동태적 효율성에 어떤 관련을 갖는지 검토하며, 이를 세 가지 비교 사례를 통해 개념적으로 분석한다.

III. 사례 분석

플랫폼과 창작자 간의 IP(지식재산권) 배분 문제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본 연구는 코즈적 협상을 저해하는 거래비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서로 다른 세 가지 사례를 비교함으로써 한국 영상물 산업에 대한 제도적 함의를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1. 프랑스의 AVMS 이행령 및 독립 제작물 보호 정책, 2. 한국 음악산업의 집단관리 모델, 3. 넷플릭스 중심의 한국 영상물 제작 구조를 주요 분석 사례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의 사례는 다음 세 가지 기준에 따라 선정되었다. 첫째, IP 귀속 구조가 서로 대비되는 제도적 모형을 대표할 것. 둘째, 거래비용 해결 방식에서 공적 규제, 민간 집단관리, 시장 논리라는 상이한 메커니즘을 각각 대표할 것. 셋째, 한국 영상물 산업에 대한 제도적 함의를 도출하기에 충분한 공식 문헌 및 선행연구가 존재할 것. 이에 따라 최종 선정된 사례는 프랑스의 AVMS 이행령 기반 규제 모형, 한국 음악산업의 집단관리 모형, 넷플릭스 중심의 한국 영상물 권리집중형 계약구조이다. 다만 세 사례는 서로 다른 국가·산업·규제 환경에 위치하므로, 본 비교는 제도 효과의 크기를 일반화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제도 메커니즘의 차이를 유형화하기 위한 목적론적 사례 선택(purposive case selection)임을 전제한다.

본 연구의 사례 선정은 유사사례 비교가 아니라 대비 사례 비교에 가깝다. 프랑스 사례는 국가 규제를 통해 플랫폼의 권리집중을 제한하는 공적 재산권 보호 모형을 보여주고, 한국 음악산업 사례는 집단관리와 단일창구 협상을 통해 거래비용을 낮추는 보조적 참조 사례를 제공하며, OTT 중심 한국 영상물 계약 구조는 권리집중과 협상력 비대칭이 강하게 작동하는 권리집중형 모형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이들 사례를 권

리 귀속, 거래비용, 협상력 구조, 위험분담, 후속 수익 회수 가능성의 기준으로 비교한다. 다만 음악과 영상은 저작물 구조와 투자 방식이 상이하므로, 본 연구의 비교 사례는 정량적 효과 비교가 아니라 제도적 메커니즘의 차이를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더불어, 각 사례는 이성섭(2003)이 제시한 재산권 보호원칙(PR)과 손해배상원칙(LR) 중 어떤 법적·제도적 기제를 통해 지식재산권 시장의 높은 거래비용을 해결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모델들이다. 이에 본 장에서는 프랑스 모델을 ‘공적 PR 확립 모델’로, 한국 음악산업을 ‘민간 주도 PR 구현 모델’로, 넷플릭스 모델을 ‘시장 지배적 LR 모델’로 각각 재정의하여 비교 분석한다.

<표 1> 사례 선정

	프랑스 AVMS 모델	한국 음악산업 모델	넷플릭스 중심 모델
모델 성격	공적 규제 중심	민간 주도 집단 관리	시장 논리 기반 독점
이론적 성격	공적 재산권 보호 원칙(PR)	민간 협상 기반 PR	시장 지배적 손해배상원칙(LR)
거래비용 해결	법적 투자 의무 및 IP 귀속 강제	신약 관리 및 단일 창구 협상	플랫폼의 위험 및 권리 통합
의의	국가 개입의 실효성	집단지권 관리 행사	시장 실패 및 불균형 규명

<표 1>은 세 사례를 동일한 산업 단위의 직접 비교 대상으로 제시하려는 것이 아니라, 권리 배분을 둘러싼 제도적 메커니즘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한 분석 좌표를 요약한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세 사례의 성과 크기를 정량적으로 서열화하는 데 있지 않고, 권리 귀속, 거래비용, 협상력 구조, 위험 분담, 후속 수익 회수 가능성의 차이가 동태적 효율성의 조건에 어떠한 차이를 만드는지를 개념적으로 검토하는 데 있다. 특히 프랑스 사례와 OTT 중심 계약구조를 주요 비교 축으로 삼고, 한국 음악산업 사례는 집단관리와 단일창구 협상이 거래비용을 어떻게 완화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보조 사례로 활용한다.

즉, 이들은 거래비용의 발생 양상과 그에 대한 제도적 대응 방식이 대비되는 사례들로서 세 사례의 규제 환경은 이질적이나 IP라는 희소 자원 배분이라는 공통의 목적 아래 거래비용과 협상력, 위험분담과 수익배분 구조에 있어 상이한 특징을 지닌다.

3.1. 프랑스 AVMS 이행령: 공적 재산권 보호 원칙(Public PR) 확립 모델

프랑스는 국가영화시청각센터(Centre national du cinéma et de l'image animée, CNC)를 중심으로 한 공공정책을 통해 독립 제작과 작품 다양성을 제도적으로 유지해 온 대표 사례로 평가된다(Cour des comptes, 2023). 그러나 넷플릭스를 필두로 한 구독형 비디오(SVOD)의 성장과 코로나 팬데믹 충격이 겹치며 콘텐츠 수요 유통 구조가 급변하였고, 2022년 프랑스 극장

의 관객은 1억 5,200만 명으로 코로나 팬데믹 직전 대비 26.9 퍼센트 감소하였다(CNC, 2023). 심지어 같은 해 비디오 전체 시장 23억 유로 중 90%는 이용자가 원하는 시간에 프로그램을 재생할 수 있는 VOD 중심으로 전환되었다(Ministère de la Culture, 2023).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프랑스 정부는 2021년 SMAD 이행령을 제정해 프랑스 내 연동 투자 의무와 독립 제작자 보호를 플랫폼에 부과하였고, 이는 EU 시청각미디어 서비스 지침(AVMSD)의 취지를 국내에 정착시킨 조치였다(Legifrance, 2021; European Audiovisual Observatory, 2022). 학계는 이를 글로벌 플랫폼 확산에 대한 정책적 응답, 곧 디지털 주권의 재강화로 해석한다(Davis, 2021; Tambini, 2025).

이와 같은 제도적 응답은 글로벌 OTT에 대한 규제와 투자 의무를 강화한 것으로 구체화 된다. 2021년에 제정된 SMAD 이행령(Décret SMAD)은 넷플릭스 등 해외 OTT 서비스가 프랑스 시청자를 대상으로 서비스할 경우 연간 프랑스 수익의 20%까지 현지 영화 및 영상물 제작에 투자하도록 의무화하였다(Osborne Clarke, 2021). 이 중 상당 부분은 반드시 독립 제작 지원에 쓰이도록 규정했는데, 예를 들어 총 투자액의 75%는 독립 영화 제작, 독립 TV 프로그램 제작에 할당하도록 명시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독립 제작물이란 방송사나 플랫폼으로부터 경영적으로 독립된 제작사가 만든 콘텐츠를 의미하며, 프랑스법은 그 판단 기준으로 지분 관계의 독립성뿐만 아니라 IP 권리의 귀속 여부를 고려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서비스 제공자인 플랫폼이 제작사의 지분을 소유하거나 제작사가 플랫폼 지분을 소유하면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독립 작품으로 인정받으려면 2차 저작권의 귀속에 제한을 두는데, 플랫폼이 직접 활용하지 않는 부가적 권리를 가져가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 있다(European Audiovisual Observatory, 2023b). 특히 VOD용 영상물의 경우 플랫폼은 오직 자사 스트리밍 권리만을 취득하고 그 외의 2차적 권리는 제작사에 남겨두어야 독립물로 간주 된다. 아울러 플랫폼의 이용 권한도 기간 제한을 두어 계약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일정 기간이 지나면 권리가 제작사에게 돌아가 추가 활용을 모색할 수 있다. 이러한 제도로 프랑스는 OTT 투자 자본을 국내 콘텐츠 제작 활성화에 활용함과 동시에 창작자의 IP 보유를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있다. 이는 국가가 개입하여 제작자의 사전 동의 없이는 권리 이전이 불가능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사실상의 ‘공적 PR 체제’를 구축한 것이다. 개별 제작사가 플랫폼과 일일이 협상해야 하는 거래비용을 법적 투자 의무와 권리 귀속 조항으로 명시하여 원천적으로 제거한 모델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2023년 넷플릭스는 프랑스 규제 당국과의 협약을 통해 의무 투자분의 68%를 독립 제작 콘텐츠에 투입하기로 합의했으며, 투자액 중 85%는 프랑스어 콘텐츠로, 10%는 다큐와 애니메이션 등 다양성 장르로 구성하는 등 지역 창작 생태계의 다양성을 존중하기로 하였다(Blocman, 2023). 이는 USPA, SPI 등의 독립 제작사들의 단체와 넷플릭스 간 집단협상을 거쳐 이루어진 결과로서 프랑스식 제도 보호 장치가 실효성을 거두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2> 프랑스 제도를 구성하는 핵심 장치와 실행 전략 대응

제도 내용 및 효과	국내 시사점	실행 전략
OTT 매출 투자 의무 - SMAD 시행령 으로 해외 OTT 플랫폼 프랑스 매출 20% 현지 제작 투자 의무 (CSA, 2021) 2021~2023년 사이 OTT 3사는 총 8억 유로 이상을 프랑스 콘텐츠에 투입(Frontier Economics, 2024; UGC Avocats, 2021)	- 투자 의무 도입 - K-콘텐츠 제작에 안정적 재원 공급 유도	① 방송법·영상진흥법 개정을 통한 OTT 매출 연동 투자 ② 투자액 중 일정 비율 독립 제작사와 창작자 프로젝트로 지정
독립 제작물 요건 및 IP 권리 제한 - OTT가 제작사에 직간접 지분을 보유하면 독립으로 인정하지 않음 - OTT가 확보할 독점권은 최대 36개월 이하 - 부가권은 제작사 보유 (European Audiovisual Observatory, 2022, 2023a, 2023b)	제작사 자산 축적 및 동적 효율성 확보를 위한 '공적 IP(재산권 보호 원칙) 확립	① 표준계약서 개정으로 OTT 독점 이용 기간 상한 ② 자동 권리 환원 조항 의무화 ③ 독립 창작자 지분 요건 신설
미디어 크로노로지 창구 순환제 - 극장→TV→SVOD 순의 단계별 공개 - 시차를 재설정하여 권리 회전율과 수익 다각화 지원 (Hogan Lovells, 2022)	- 개봉 방송 OTT 창구 조정을 통한 제작사의 부가 수익 회수 - 파이프라인 다각화	① 영화 OTT 창구 규칙 마련 ② 공정위원회 예외 승인 아래 제작사 단체 플랫폼·극장 간 다자 협약 체결
집단협상 및 규제 모니터링 - 제작사 단체와 OTT 간 투자·권리 원칙 다자협상 - ARCOM·CNC가 투자 실적과 계약 준수 여부 상시 공개·감독 (Frontier Economics, 2024)	제작사와 작가가 개별적으로 플랫폼과 교섭 한계, 집단 관리 및 협상의 틀 마련	① 독립 제작사 연합 설립 후 OTT와 Terms of Trade 협약 ② 영상저작권 집단관리 기구 설립 추진 ③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전담 감시·분쟁 조정 기구 설치
재투자 및 파급효과 - 투자 의무제 도입 뒤 OTT 투자가 3년간 1억 유로 이상 증가 - 고용 및 제작 역량 확대	정책적 개입이 국내 창작 생태계의 자본 축적과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 확인	① OTT 투자 내역 성과 공개 의무화 ② 기여금 일부 지역·신인 창작 지원 기금 환류
금융 보증 인프라 세액공제, 보조금, 선구매 등 다층적 자금 조달(Centre National du Cinéma et de l'Image Animée, 2010)	IP를 보유한 국내 제작사의 금융 부담 완충제도	① 문화산업완성보증 한도 확대·보증료 감면 ② 판권 담보대출 도입 및 세액공제를 상향 ③ 한국콘텐츠진흥원·기보·신보의 연계 프로그램 활성화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증기금, 2024)
창작자 수익분배 모델 IP 잔여권을 통한 2차 판권·리메이크수익 확보	장기 수익이 창작자에게 환류되어야 산업 지속 성장	① 성과 연동 로열티 및 계단식 수익 공유 조항 의무화 ② KOMCA의 정산 시스템 구축으로 투명성 확보

<표 2>는 프랑스 제도를 구성하는 여섯 가지 핵심 장치를 요약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 영상물 산업이 적용할 수 있는 시사점과 구체적인 실행 전략을 대응시킨 것이다. 프랑스 모델은 법과 투자 의무, 권리 환원, 모니터링, 금융 지원이 유기

적으로 결합하여 거래비용을 낮추고 창작자의 IP 주권을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프랑스 사례는 공적 규제를 통해 플랫폼의 권리집중을 제약하고, 후속 판권과 부가권의 일부를 제작사에 남겨둌으로써 제작사 자산 축적과 채투자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구조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본 연구의 분석틀에서 볼 때, 초기 IP 귀속과 권리 환원 장치가 동태적 효율성의 조건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 사례이다.

3.2. 한국 음악산업: 집단관리와 거래비용 절감 메커니즘의 보조 사례

한국 음악산업에서는 IP 귀속 및 이용 보상 체계가 영상산업과 매우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 음악 저작권 분야에서는 창작자인 작곡가와 작사가 등이 기본적으로 저작권을 보유하며 이를 신탁의 형태로 전문 단체에 위임하여 집단관리를 한다. 대표적으로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rea Music Copyright Association, KOMCA)는 1964년 설립된 비영리 저작권 신탁 관리단체로서 음악 작품의 공연권, 방송권, 복제권 등을 일괄 관리한다(한국음악저작권협회, 2024). 개별 창작자 수만 명의 권리를 한데 모아 일괄 라이선싱함으로써 방송사, 스트리밍 플랫폼, 공연장 등 이용자들이 단일 창구를 통해 손쉽게 음악을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집중관리 제도는 권리 확보 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래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하고, 흩어져 있던 개별 창작자들의 교섭력을 결집하여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한다는 제도적 장점이 있다. 이러한 집단 관리의 거래비용 절감 효과는 학술적으로도 확인된다. Priest(2021)는 집단관리기구가 수백만 건의 개별 라이선스 협상을 단일 창구로 대체함으로써 권리와 이용자 양측의 거래비용을 동시에 낮추는 효과를 지닌다고 분석하였다. 나아가 플랫폼의 수익 배분 모델 자체가 권리자의 실질 소득을 결정하는 핵심 변수임을 고려할 때(Meyn et al., 2023), 집단 관리를 통한 협상력 결집은 창작자 기대 소득의 안정성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방송국이나 음원 스트리밍 사업자는 KOMCA와 사용료율에 대해 협상하거나 정해진 요율로 포괄적 이용 허락을 얻고, 협회는 이를 창작자들에게 분배한다. 2024년 KOMCA의 국내외 징수액은 총 4,370억에 달했고, 5만 5천여 회원에게 4,240억 원 가량의 저작권료가 분배되었다(한국음악저작권협회, 2024). 이처럼 음악산업에서는 창작자가 기본적으로 IP를 보유한 상태에서 이용당 수익을 지속적으로 분배받는 구조가 정착되어 있다. 플랫폼은 음악을 개별 곡 단위로 매입하는 것이 아니라 매출의 일정 비율을 저작권 사용료로 내거나 정액 사용료를 지불하며, 곡의 인기와 사용 빈도에 따라 창작자가 수익을 얻는다. 이는 창작자에게 성과에 따른 보상이 지속적으로 분배되는 한편, 플랫폼 입장에서도 방대한 음악 저작물을 단일 창구를 통해 효율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상호 호혜적 구조로 이해할 수 있다. 즉, 음악 분야의 집단관리 모델은 수만 명의 권리자가 집중관리기구(KOMCA)

를 통해 집단적 협상력을 확보함으로써, 거대 플랫폼에 대응해 실질적인 PR 체제를 행사하는 모델이다. 이는 분산된 권리로 인해 발생하는 거래비용을 단일 창구를 통해 혁신적으로 낮추어 창작자의 기대 소득을 높인 의미 있는 사례이다. 물론 음악산업은 영상산업과 동일한 투자 구조를 갖지 않지만, 집단관리와 단일창구 협상이 거래비용과 협상 비용을 실질적으로 완화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보조 사례로서 의미를 가진다. 이 점은 창작자 기대소득의 안정성과 수익회수의 예측가능성이 동태적 효율성의 한 축을 이룬다는 본 연구의 문제의식과 연결된다.

<표 3> 한국 음악 산업이 창작자 보상을 강화한 메커니즘

	제도 내용 및 효과	국내 시사점	실행 전략
집중관리 집단협상 구조(KOMCA A 모델)	- 5만 5천여 회원의 공연 방송 복제권 일괄신탁 - 플랫폼 및 방송사와 단일 창구 라이선스를 체결 - 아시아 최대 규모 집단관리 체계 운영	- 협상력 격차(거래비용) 해소를 통한 창작자의 실질적 PR (재산권 보호원칙)	① 영상저작권 관리기구 설립 및 저작권법 명시 ② OTT가 해당 기구와 포괄 라이선스 및 사용료를 계약 체결 유도 ③ 정부는 공정거래법상 공동행위 예외 인정 및 협상력 제도적 보장
스트리밍 수익배분(65:35)	- 2019년부터 스트리밍 수익 중 65% 권리지 못 법적 보장 플랫폼 몫은 35% 제한, 창작자 수익을 실질 개선 (Cinak, 2018; 한국음악저작권협회, 2024)	- 법정 또는 준 법정 사용료를 설정 기반 OTT의 과도한 이익 편중 방지	① 방송법·영상진흥법 개정으로 OTT 매출의 일정 비율 제작사·창작자 보상 의무 배분 ② 창작자 단체 사용료를 조정 정기 협상 규정
투명한 정산 모니터링 시스템	- 모바일 앱/웹 포털 기반 월별 작품별 정산 내역 공개 - 정보 비대칭과 불신 최소화 (CISAC, 2021)	- 블록체인 기반 영상 저작권료 정산 - 메타데이터 관리나 온라인 대시보드로 투명성 확보	① OTT·제작사 집단 관리기구 간 공동 데이터 표준 마련 ② 실시간 시청 데이터 기반 자동 정산 시스템 구축에 대한 정부 세제 혜택 지원
복수관리단체 경쟁 KOMCA vs KOSCAP	- KOSCAP 설립 이후 창작자 권리 선택 위임 가능 - 단체 간 서비스 경쟁이 투명성과 분배 효율성 높임	- 영상 분야도 복수 집단관리 기구 허용 - 독점 폐해 예방 서비스 혁신 유도	① 관리단체 인가 요건을 완화하되 공시와 감사 의무 부과 ② 제작사·작가가 권리 관리 방식을 자유롭게 선택

<표 3>은 한국 음악산업이 확립한 집중관리·수익배분·투명정산 구조가 거래비용을 낮추고 창작자 보상을 강화한 메커니즘을 요약하고, 이를 영상물 콘텐츠 시장에 적용할 때의 정책적 함의와 검토 가능한 제도적 과제를 정리한다.

3.3. 넷플릭스 중심의 제작 구조: 시장 지배적 손해배상원칙(Market LR) 모델

한국 영상물 시장은 방송사 계열 스튜디오, 국내 OTT, 글로벌 복수 플랫폼, 공동제작, 비독점 선판매 등 다양한 조달·유통 구조가 공존한다. 그럼에도 본 절은 그중 초기 IP 귀속이 플랫폼에 강하게 집중되는 권리집중형 계약구조를 분석 대상으로 삼는다. 따라서 본 절의 논의는 한국 영상산업 전체를 단일 구조로 환원하려는 것이 아니라, 플랫폼 권리 집중이 강하게 작동하는 계약유형의 제도적 함의를 검토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권리집중형 계약구조의 대표적 사례로, 최근 몇 년간 빠르게 확산된 넷플릭스 오리지널 제작 방식은 앞서 살펴본 두 사례와 상당히 대조적인 구조를 보인다.

넷플릭스는 한국의 유망한 드라마와 영화 프로젝트에 대해 제작비 전액을 투자하고 제작비용의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는 대신 완성된 콘텐츠의 모든 IP 권리를 독점으로 가져가는 계약을 맺는다(Park et al., 2023). 이렇게 제작된 넷플릭스 오리지널 한국 시리즈들은 넷플릭스 플랫폼에서 국내외에 독점 공개되며, 해당 콘텐츠의 저작권 및 2차 판권은 전적으로 넷플릭스가 소유한다. Kim(2025)은 넷플릭스가 한국 제작사와의 파트너십에서 글로벌 자본을 활용해 배급을 지배하고 불균등한 파트너십을 형성함으로써 한국 제작을 글로벌 가치사슬에 편입시키며, 이 과정에서 제작사는 모든 부가권을 플랫폼에 이전하게 된다고 지적하였다. Jang & Kim(2026) 역시 한국 미디어 산업이 OTT를 통한 단순 콘텐츠 판매에서 IP 보유 중심으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한다.

앞서 서론에서 언급한 <오징어 게임> 사례에서 보았듯이, 전 세계적인 흥행으로 거둔 막대한 수익이 플랫폼에 일방적으로 귀속되고 제작자는 비교적 소액의 제작비 마진만 취하는 구조는 업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Kim, 2023). 이는 한국 제작사들로 하여금 자조 섞인 불만을 낳았고, 플랫폼을 통한 글로벌 진출이 오히려 국내 제작사를 하청업체화 한다는 우려를 만들었다. 다만 최근에는 이러한 흐름에 변화의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일부 제작사는 넷플릭스의 전액 투자·완전 IP 양도 제안을 거부하고 대안적 유통 전략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제작사 에이스토리는 당초 넷플릭스 오리지널로 제안을 받았으나 이를 거절하고, 대신 국내 소규모 채널 ENA에서 먼저 방영한 후 넷플릭스에 비독점적 스트리밍 판권만 판매하는 방식을 택했다(Nguyen, 2022). 그 결과 에이스토리는 IP 소유권을 온전히 유지하면서 해당 작품의 웹툰, 뮤지컬 제작, 해외 리메이크 관련 판매 등 2차 사업을 직접 전개하여 부가 수익을 얻을 수 있었다. 이는 한국 영상물 업계에도 IP 주도권 확보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음을 시사하는데, 이러한 움직임은 한국 시장의 계약구조가 단일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권리집중형 계약구조가 여전히 중요한 분석 대상임을 알려준다. 즉 한국 영상물 시장 전체를 하나의 구조로 환원할 수는 없

지만, 글로벌 OTT가 초기 투자와 광범위한 권리 확보를 결합하는 계약유형은 한국 제작사가 직면한 핵심 협상 구조 중 하나로 볼 수 있다(Davis, 2021). 요컨대 이 사례는 플랫폼이 초기 투자와 광범위한 권리 확보를 결합하는 계약유형에서 위험 분담과 후속 수익 회수의 경로가 어떻게 재편되는지를 보여줌으로써, 권리 집중형 구조는 단기 자금조달에는 유리할 수 있으나 제작사의 자산 축적과 후속 재투자 가능성 측면에서는 계약을 낳을 수 있다는 점에서 동태적 효율성의 비교 대상으로 기능한다.

IV. 사례 비교 종합

본 장에서는 앞서 살펴본 세 사례를 거래 비용과 협상 구조, 위험 분담과 보상구조, 수익배분과 산업 파급효과의 측면으로 재정리한다. 이를 통해 각 사례가 창작자 기대 소득, 제작사 자산 축적, 재투자 가능성 등 동태적 효율성의 조건에 어떠한 차이를 만드는지를 비교할 수 있다. 특히 프랑스 사례와 OTT 중심 권리집중형 계약구조를 주요 비교 축으로 삼고, 한국 음악산업 사례는 집단관리와 거래비용 절감 메커니즘을 보여주는 보조 사례로 활용한다.

4.1. 거래비용 및 협상 구조 측면

프랑스의 음악산업 사례는 모두 집단적 장치를 통해 개별 협상의 비효율을 극복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프랑스의 경우 법령을 통해 OTT와 제작사 사이의 협상 결과를 일정 부분 선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개별 제작사가 거대 플랫폼과 일일이 협상해야 하는 부담을 줄였다. 더 나아가 프랑스에서는 넷플릭스와 제작자 단체 간 포괄적 협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여(Blocman, 2023), 사실상 집단협상을 통해 산업 전반의 투자 비율과 권리 귀속에 관한 원칙을 설정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한국 음악산업도 KOMCA를 비롯한 집중관리 기구가 수만 명의 권리를 한데 묶어 플랫폼과 일괄 교섭을 수행함으로써 개별 창작자가 겪을 교섭 비용을 제거하여 협상력의 대등함을 확보한다. 이에 비해 한국 영상물 제작자들은 협상에서 분산된 지위에서 거대 플랫폼과 개별적으로 교섭해야 하는 구조적 한계에 직면해 있으며, 이들의 분산된 지위는 넷플릭스와 같은 거대 플랫폼의 일방적 계약 조건을 수용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즉, 거래비용 완화 장치가 단순히 협상 절차를 간소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창작자와 제작사가 후속 협상에 다시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과 재투자 여력을 좌우하는 제도적 전제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거래비용의 수준은 본 연구에서 동태적 효율성을 구성하는 후속 수익 회수 가능성과 제작사 자산 축적 가능성에 직접 연결되는 분석 기준으로 이해될 수 있다.

4.2. 위험 분담과 보상구조 측면

위험 분담과 보상구조 측면에서는 사례마다 조금씩 다른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 넷플릭스 모델은 플랫폼이 전액 제작비를 부담하여 금융적 위험을 모두 떠안지만, 그 대가로 모든 IP와 수익을 획득함으로써 위험 대비 보상이 플랫폼에 일방적으로 치우친 구조이다. 반면 프랑스 AVMS 이행령에서는 플랫폼이 투자의 의무를 지되, IP의 상당 부분을 제작사에 남겨두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다시 말해 플랫폼이 자금 조달로서의 위험부담 역할을 하면서도 영구 소유권은 갖지 못하고 일정 기간 이용권만 갖기 때문에, 위험과 보상이 보다 분산된다. 이는 곧 성공작이 나올 경우 플랫폼은 구독자 확보나 초기 투자분 회수 이상의 초과 이익을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제작사는 남은 IP를 통해 2차 관련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구조이다. 음악산업의 경우는 조금 결이 다른데, 기본적으로 창작자가 곡을 만들고 음반사가 제작 투자를 하지만 플랫폼은 사전에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성과에 따라 사용료를 낸다. 즉 곡이 인기를 얻으면 플랫폼은 더 많은 로열티를 지급하나, 곡이 소비되지 않으면 거의 지불하지 않는 구조이다. 여기서 곡의 성공 여부에 따른 수익 불확실성의 위험은 창작자와 제작 투자자가 지고, 플랫폼은 변동비 형태로 비용을 부담하여 위험을 최소화하는 형태이다. 대신 히트곡이 나와도 플랫폼은 가져가는 몫이 일정 비율로 제한되고 상당 부분은 권리자에게로 귀속된다. 결론적으로 음악 분야는 창작자 측이 위험도 지고 보상도 받는 구조이며, 프랑스 영상물 모델은 플랫폼이 위험을 지고 보상은 창작자와 분담하는 구조, 넷플릭스 모델은 플랫폼이 위험을 지되 보상을 독식하는 구조로 정리할 수 있다.

이러한 위험 및 보상구조의 차이는 이성섭(2003)이 제시한 법적 보호 원칙의 차이와 직결된다. 넷플릭스 모델은 플랫폼이 모든 금융 위험을 부담하는 대가로 사후적 보상만을 지급하고 권리를 강제 취득하는 '시장 지배적 LR 체제'를 공고히 하고 있다. 반면, 프랑스 모델은 국가가 개입하여 플랫폼이 위험을 부담하되 IP라는 재산권만큼은 창작자에게 귀속되도록 '공적 PR'을 확립함으로써 위험과 보상의 균형을 강제한다. 결론적으로 한국 영상 산업의 효율성 저해는 거래비용이 높은 시장 환경에서 창작자의 기대 소득을 낮추는 LR 중심의 계약 구조가 굳어졌기 때문으로 분석할 수 있다.

이러한 이론적 배경하에 산업 효율성의 측면에서 보면 위험과 보상의 적절한 분담은 창작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요소이다. 플랫폼이 모든 보상을 가져가는 구조에서는 단기적으로는 제작사가 안정적인 제작 환경을 얻는 듯하지만, 장기적으로 자체 IP를 축적하거나 성공에 따른 인센티브를 누리지 못해 창의성과 투자 유인이 감소할 위험이 있다. 반대로 창작자가 위험을 과도하게 지는 구조에서는 음악 산업의 신인의 경우처럼 음반을 만들 기회조차 얻기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플랫폼의 자본력을 활용하되 창작자도 성공의 과실을

공유하는 중간지점이 바람직하다는 것인데, 프랑스 영상물 모델이나 과거 한국 방송사의 외주 제작 표준계약 등이 그러한 균형점을 찾는 제도적 노력으로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위험 분담 방식의 차이는 단순한 비용 배분 문제가 아니라, 창작자 기대 소득의 안정성과 차기 프로젝트에 대한 재도전 가능성을 결정하는 핵심 변수로 해석될 수 있다. 즉 플랫폼이 모든 위험을 부담하더라도 권리집중이 과도하면 장기 인센티브가 약화 될 수 있으며, 반대로 창작자가 위험을 과도하게 부담하면 시장 진입 자체가 제약될 수 있다는 점이 세 사례의 비교를 통해 알 수 있다.

4.3. 수익배분과 산업 파급효과 측면

IP 귀속 구조의 차이는 산업의 가치사슬과 사업자 간 힘의 역학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프랑스의 독립 제작 보호 정책이나 한국 음악산업의 집단관리 모델에서는 창작자와 제작자에게 수익이 흘러가는 통로가 열려있다. 프랑스 독립 프로듀서는 작품이 성공하면 해외 판매나 2차 플랫폼과의 계약 등을 통해 추가 수익을 올리고 이를 재투자함으로써 현지 제작 역량 강화와 콘텐츠 다양성에 기여한다. 음악산업에서도 인기 음악의 저작권료 수입이 결국 작곡가, 작사가, 가수 등에게 돌아가 다음 창작의 기반이 되었다. 반면 넷플릭스 주도 구조에서는 글로벌 성공에 따른 대부분의 이익이 미국 본사의 수익으로 흡수되고, 국내 제작사들은 일정 수준 이상의 규모 성장을 이루기 어려운 구조가 된다(Jin, 2017). 이는 산업 전체로 보면 부의 해외 유출이자 국내 창작 생태계로의 환류 부족 현상으로 이어진다. 또한 플랫폼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제작사는 자체 IP 자산의 부재로 기업 가치 상승이나 브랜드 구축에 한계가 있고, 이는 장기적으로 산업의 경쟁력 약화로도 연결될 수 있다. 협상력 측면에서도 플랫폼이 모든 흥행 과실을 가져가는 현재 구조에서는 시간이 지날수록 플랫폼의 자본 축적과 영향력이 커져 더 유리한 위치를 점하게 되면 창작자는 상대적으로 교섭력이 약화 되는 악순환이 우려된다(Davis, 2021). 결국 산업의 효율적 발전을 위해서는 거래비용의 제약을 줄이고 협상력 불균형을 교정함으로써 초기 권리 배분을 보다 창작자 친화적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에 이른다. 이는 정부 개입 없이 효율적 결과 도출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제도적 개입이 정당화될 수 있다는 코즈 정리의 함의와 맥락을 같이 한다(Farrell, 1987). 결국 수익 회수 경로가 창작자와 제작사에게 어느 정도 열려 있는지가 제작사 자산 축적과 산업 내 재투자 선순환의 핵심 조건이라는 점이 세 사례 비교를 통해 확인된다. 이 점에서 후속 판권, 부가권, 재라이선싱 기회의 존재 여부는 본 연구가 정의한 동태적 효율성의 중심 지표로 해석될 수 있다.

요약하면, 세 사례 비교는 초기 IP 귀속의 차이가 거래비용, 협상력, 위험 분담, 수익 회수 경로를 통해 동태적 효율성의 조건에 상이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이러한

비교는 제도 효과의 크기를 정량적으로 측정한 결과가 아니라, 서로 다른 제도 메커니즘이 창작자 기대 소득과 제작사 재투자 가능성에 어떠한 방향성을 제공하는지를 검토한 개념적 분석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이하의 정책 논의 역시 이러한 비교 결과로부터 도출되는 조건부 함의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아래 <표 4>는 세 사례의 비교 결과를 동태적 효율성의 하위 지표별로 구조화한 것이다.

<표 4> 세 사례의 동태적 효율성 비교

비교기준	프랑스 AVMS 모델	한국 음악산업 모델	넷플릭스 중심 모델
초기 IP 귀속	제작사 우선 귀속	창작자 보유 후 선택	플랫폼 전방 귀속
거래비용 수준	법령으로 낮춤	집단 관리로 낮춤	개별 협상으로 높음
협상력 구조	법적 균형 강제	집단협상으로 대등화	플랫폼 일방 우위
위험 분담	플랫폼 투자, 제작사 IP 보유	창작자 위험 보상 부담	플랫폼 위험 및 보상 독점
후속 수익 회수	2차 판권 제작사 보유 가능	사용료 지속 분배	불가 (플랫폼 독점)
창작자 기대 소득	상대적으로 높음	성과 연동 안정적	낮음 (일회성 제작비)
제작사 자산 축적	가능	가능 (저작권 자산화)	제한적
재투자 가능성	높음	높음	낮음
PR/LR 성격	공적 PR	민간 PR	시장 지배적 LR

<표 4>는 각 사례의 제도 메커니즘 차이가 동태적 효율성의 하위 지표에 미치는 방향성을 요약한 것으로, 이하 V장 정책적 함의 논의의 근거로 활용된다.

V. 정책적 함의와 제도적 과제

지금까지의 비교는 초기 IP 귀속 구조, 거래비용, 협상력, 위험 분담, 후속 수익 회수 경로가 동태적 효율성의 조건에서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하의 논의는 앞선 비교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 영상물 산업에서 검토할 수 있는 정책적 함의와 제도적 과제를 정리한 것이다. 따라서 다음의 논의는 효과가 이미 입증된 확정적 처방이라기보다, 사례 비교에서 확인된 제도 메커니즘을 한국적 맥락에서 조건부로 적용해 본 분석적 제안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5.1. IP 귀속 기본원칙 전환

현재 영상물 제작에 있어 저작권 및 주요 IP가 플랫폼에 귀속되는 관행을 제도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즉, 영상물 제작에 있어서 저작권 및 주요 IP를 제작사와 창작자가 우선적 권리를 갖도록 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하다.

이러한 권리 귀속의 전환은 이성섭(2003)이 제시한 ‘사실상의 손해배상원칙(LR)’ 체계에서 ‘재산권 보호 원칙(PR)’ 체계로의 이행을 의미한다. 현재 플랫폼이 제작비와 마진을 지급하며 IP를 독점하는 구조는 권리 침해자가 통상적 대가만 지

불하고 면죄부를 받는 LR 방식과 경제적으로 동일하다. 따라서 초기 IP 배분을 제작사에게 귀속시키는 PR 체제를 확립함으로써, 창작자의 기대 소득을 높이고 지식기반 산업의 활성화를 유도하는 ‘동태적 효율성(Dynamic Efficiency)’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는 현행 저작권법 제8조는 저작자에게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동 규정을 제작사 및 창작자에게 당연히 귀속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방송법이나 저작권법상의 공공정책 선언 상태로 OTT 분야 독립제작사 보호 조항을 마련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 하다. 그러나 법을 개정하는 경우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저작물에 대한 플랫폼의 투자가 저해될 수 있고, 그로 인하여 한국의 영상산업이 고사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보다 유연하게 접근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가이드라인 또는 표준약관을 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가이드라인 등은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플랫폼 기업과 저작자들 사이에 계약 시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고,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판단 기준으로서 역할을 하게 된다. 따라서 현재의 관행을 바꿀 수 있는 연성 규제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다만, 현행 관행을 개선하는 것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부작용 및 반발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OTT 플랫폼, 제작사 및 창작자들과 함께 상설협의체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5.2. 플랫폼의 투자 방식 개선

플랫폼이 창작자의 IP를 존중하면서도 자신들의 투자위험을 관리할 수 있도록, 투자 방식의 변환이 필요하다. 즉, 투자-완전 IP 양도 모델을 사전 라이선스 또는 미니멈 개런티 지급 모델로 전환한다. 플랫폼은 여전히 제작비의 상당 부분을 부담하되, 그 대가로 IP를 소유하는 대신 일정 기간 독점 공개권이나 우선 배포권을 갖는 형태이다. 예를 들어 ‘제작비 100% 제공과 한국 및 글로벌 5년 독점 스트리밍권 획득’과 같이 계약하고, 5년 후에는 권리가 제작사로 이양되어 2차 판매를 모색하거나, 혹은 플랫폼이 연장 여부를 협의하도록 한다(European Audiovisual Observatory, 2023b). 이 모델은 플랫폼에게도 전략적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제작사가 IP를 보유하게 되면 단순 하청업체가 아닌 혁신 주체(Entrepreneur)로서 콘텐츠의 확장성을 고민하게 되며, 이는 플랫폼에게 양질의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선순환적 공급망 안정성을 보장한다. 또한, 충분한 독점 이용 기간을 보장함으로써 플랫폼의 초기 투자 리스크를 완화하고, 이후 권리가 환원되는 단계적 모델을 통해 플랫폼의 수익성과 제작사의 자산화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플랫폼은 단기 독점으로 구독자 유치 효과를 누리고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으며,

콘텐츠가 성공할 시에도 추가 시즌 계약이나 파생 사업을 제작사와 분담하여 추진하는 구조가 될 수 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는 플랫폼들과의 협의를 통해 권리 유보 기간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업계에서 이를 채택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5.3. 집단관리·집단협상 구조 도입

영상물 분야에도 음악 저작권 신탁과 유사한 집단적 권리관리 또는 협상 기구를 도입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예컨대 다수의 독립 제작사와 창작자가 참여하는 영상저작권 협회를 설립하여 OTT 플랫폼에 대한 일괄 라이선싱이나 집단협상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는 현실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시행하기는 다소 무리가 있겠지만, 제작사 협회 차원에서 공동으로 OTT 표준 계약 조건을 마련하고 플랫폼과 교섭하는 노력부터 시작할 수 있다. 현재 프랑스나 영국 등지에서 PACT 등의 제작사 연합이 방송사 및 플랫폼과 Terms of Trade를 협의하는 사례를 참조해 본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정부는 공정거래법상 예외 조항을 활용해 독립사업자들의 공동교섭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협상이 결렬될 경우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통해 협상력의 구조적 격차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방송사, OTT 플랫폼, 제작사 간 분쟁조정 기구를 활성화하여 불공정 계약 관행을 시정하고 표준 계약 준수를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5.4. 금융 및 완성보증 장치 강화

IP가 창작자에게 귀속되는 구조가 되면 제작사가 현재보다 자금 조달과 제작 과정의 부담을 더 많이 지게 될 수 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콘텐츠 금융 및 완성보증 제도를 더불어 확충해야 한다. 현재도 한국콘텐츠진흥원과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문화산업완성보증이 운영되고 있으나, 이는 주로 선판매 계약이 있는 프로젝트의 완성 위험만을 보증해 주는 수준이다. IP를 보유한 제작사가 기획 단계부터 자금을 원활히 확보할 수 있도록 개발비 용자, 완성 전 제작비 대출 보증, 판권 담보대출 등의 금융 상품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플랫폼과 비독점 라이선스 계약을 맺은 작품이라면 그 계약을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고 국가가 일부 보증을 서주는 식의 모델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완성보증 기금의 보증 한도를 상향하고 절차를 간소화하여 중소 제작사도 손쉽게 이용하도록 해야 한다(중소벤처기업부, 2024). 아울러 작품 완성 후 흥행 실패 위험에 대비한 보험제도 도입이나, 반대로 흥행했을 시 플랫폼과 수익을 나누는 인센티브 계약 등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즉, 플랫폼이 금융적 위험을 부담하는 대신 어느 정도 성과 연동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일방적인 구조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균형을 맞추는 것이다. 다만, 공적 지원 확대 시 우려되는 도덕적 해이와 역선택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한 장치가 병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제작사가 IP를 보유하는 조건으로 보증을 받을 경우, 총 제작비의 일정 비율을 제작사가 직접 조달하게 하는 ‘책임 투자(Skin in the game)’를 의무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또한, 이성섭(2003)이 강조한 모니터링 비용의 경제적 의미를 고려하여, 프로젝트 단계별 기성 확인 시스템과 투명한 정산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정책 자금 투입의 효율성을 담보해야 한다. 이러한 금융 보증 장치의 강화는 창작자가 IP를 가지고도 안정적으로 제작을 추진할 수 있게 만드는 안전망이 될 것이며, 플랫폼 입장에서 창작자의 이행 리스크를 낮춰줌으로써 상호 간의 협력에 도움이 될 수 있다.

<표 5> 한국 영상 산업의 선순환을 위한 5대 제도 전략

	이론적 목표 및 지향점	핵심 추진 과제 및 주제
IP 귀속의 원칙 전환	사실상의 LR 체제를 PR(재산권 보호 원칙)로 전환하여 창작자의 기대 소득 및 혁신 유인 정상화	- 저작권법 및 표준 계약서상 창작자에게 디폴트 권리 부여 - 플랫폼의 독점 이용 기간 설정 및 단계적 권리 환원 시행 주제: 문제부, 공정위
투자 방식의 다양화 및 투명성 제고	정보 비대칭성 해소 및 위험 분담 구조의 균형을 통한 동적 효율성 확보	- 원가 기반 방식에서 탈피하여 사전 라이선스, 미니멈 개런티 도입 - 플랫폼의 시청 데이터 공유 의무화 시행 주제: OTT 플랫폼, 제작사 연합
영상 저작물 집단 관리 기구의 도입	거래비용(협상 비용) 최소화를 통한 실질적인 협상력 대칭성 확보	- 영상 창작자 및 독립 제작사 연합의 집중 관리 기구 법제화 - 플랫폼과의 포괄적 이용료 협상 체계 구축 시행 주제: 창작자 단체, 정부
콘텐츠 금융 및 보증 인프라 확충	PR 체제하에서 제작사가 부담하는 재무 리스크 완화 및 민간 투자 유도	- IP 담보 대출 확대 및 국가 완성보증 제도 확충 - 제작사의 책임 투자 의무화를 통한 역선택 방지 시행 주제: KOCCA,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분쟁조정 및 성과 모니터링 강화	도덕적 해이 방지 및 사후적 권리 보호 체계 강화	- 불공정 계약 모니터링 및 분쟁조정위원회 권한 강화 - 성과 기반 보상 정산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감사 시스템 도입 시행 주제: 방송통신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

<표 5>의 다섯 가지 전략은 본 연구의 사례 비교에서 확인된 제도적 메커니즘을 한국 영상산업 맥락에 대응시켜 정리한 것이다.

VI. 결론

본 연구는 코즈 정리와 거래비용 이론을 분석 기준으로 삼아, 플랫폼 중심 계약구조에서 초기 IP 귀속 방식이 한국 영상물 산업의 동태적 효율성 조건에 어떠한 차이를 만드는지를 검토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플랫폼 시대의 IP 배분 구조를 거래비용, 협상력 비대칭, 위험 분담, 후속 수익 회수 경로가 결합된 제도적 메커니즘으로 파악하고, 이러한 메커니즘의 차이가 창작자 기대 소득, 제작사 자산 축적, 재투자 가능성과 어떠한 관련을 갖는지를 비교사례를 통해 검토하였다.

본 연구의 학술적 기여는 다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플랫폼 중심 창작 산업에서 코즈적 협상이 실패하는 구조적 조건, 즉 정보 비대칭, 협상력 불균형, 높은 거래비용을 이론적으로 규명하였다. 둘째, 재산권 보호원칙(PR)과 손해배상원칙(LR)의 이분법적 틀을 영상물 IP 배분 구조 분석에 적용함으로써 기존 플랫폼 연구에 법경제학적 시각을 접목하였다. 셋째, 프랑스 AVMS 모델·한국 음악산업·OTT 중심 계약구조라는 대비 사례 비교를 통해, 제도적 메커니즘의 차이가 동태적 효율성 조건에 미치는 방향성을 개념적으로 제시하였다.

거래비용이 0인 이상적 상태를 가정하는 코즈 정리는 협상이 원활하면 초기 권리 배분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실제 한국 영상산업은 정보 비대칭성과 협상력 격차로 인한 막대한 거래비용으로 인해 초기 IP 귀속이 산업 가치 분배의 효율성을 결정짓는 핵심 변수가 된다. 프랑스와 한국 음악산업 사례를 통해 우리는 제도 개입과 집단적 교섭 메커니즘이 어떻게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고 창작 생태계의 선순환을 가져올 수 있는지 확인하였다. 이러한 사례들은 거래비용을 낮추고 재산권 보호 원칙에 기반한 권리 구조를 확립하는 것이 지속 가능한 성장의 토대가 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상의 비교를 바탕으로 몇 가지 정책적 함의를 도출할 수 있다.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수익 구조를 마련하는 것은 K-콘텐츠의 경쟁력을 장기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플랫폼·창작자 간 협상력 불균형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적 조정자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IP 귀속에 관한 표준과 규범을 정립하고, 불공정 계약을 시정하며, 업계의 집단행동을 지원하는 한편, 금융 인프라를 보완하여 새로운 제작 유통 모델로의 전환을 촉진해야 할 것이다.

이는 단기적으로 플랫폼의 반발이나 시행상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궁극적으로 플랫폼에도 장기적으로 이익이 되는 방향이다. 플랫폼에 전략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투자 방식을 통해 독립 제작사들의 창의성과 제작 역량이 강화되면, 이는 더 양질의 콘텐츠 생산으로 이어져 플랫폼에도 안정적인 콘텐츠 공급을 보장하는 선순환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또한, 금융 지원 시 제작사의 책임 투자를 의무화함으로써 도덕적 해이와 역선택의 위험을 관리하는 실효성 있는 제도적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

한국이 공정하고 효율적인 IP 생태계를 구축하면 글로벌 OTT 시대에도 지속 가능한 산업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의 분석은 산업계 현실과 이론적 통찰을 접목하여 정책적 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지며, 향후 표준계약서 개정 작업, 입법 논의, 업계 자율 협약 등의 구체적 실천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한국 영상물 시장이 플랫폼과 창작자가 상생하는 구조로 거듭난다면, 이는 K-콘텐츠의 지속 발전과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REFERENCE

- 김상국·이재석(2021). 벤처기업의 지식재산권 활동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벤처창업연구*, 16(2), 101-112.
- 이성섭(2003). 지적재산권 권리침해와 재산권보호원칙의 경제분석. *비교경제연구*, 10(2), 147-173.
- 이형모·김명숙·김응규(2012). 기술창업기업의 특허활동이 초기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벤처창업연구*, 7(3), 115-125.
- 중소벤처기업부·기술보증기금(2024). 2024년 문화산업완성보증 안내. Bizinfo. Retrieved (2026.03.04) from https://www.bizinfo.go.kr/web/lay1/bbs/S1T122C128/AS/74/view.do?pblancId=PBLN_000000000094508.
- 한국음악저작권협회(2024). 협회 소개. Retrieved (2026.03.04.) from <https://www.komca.or.kr/CTLJSP>.
- Allen, D. W.(1991). What are transaction costs?. *Research in Law and Economics*, 14, 1-18.
- Blocman, A.(2023). [FR] Audiovisual production investment obligations: First cross-industry agreement with Netflix. *IRIS-Legal Observations of the European Audiovisual Observatory*, 2023(9), 1-10.
- Calabresi, G., & Melamed, A. D.(1972). Property rules, liability rules, and inalienability: One view of the cathedral. *Harvard Law Review*, 85(6), 1089-1128.
- Centre national du cinéma et de l'image animée(CNC)(2010). *Regulatory function: Regulation of film-television relations*. Retrieved (2026.03.04.) from <https://www.cnc.fr/web/en/about/regulatory-function/regulation-of-film-television-relations>.
- Centre national du cinéma et de l'image animée(CNC)(2023). *À 152 millions d'entrées en 2022, fort rebond de la fréquentation dans un contexte encore atypique*. Retrieved (2026.03.04.) from https://www.cnc.fr/professionnels/actualites/a-152-millions-dentrees-en-2022-fort-rebond-de-la-frequentation-dans-un-contexte-encore-atypique_1861985.
- Chalaby, J. K.(2024). The streaming industry and the platform economy: An analysis. *Media, Culture & Society*, 46(1), 3-19. <https://doi.org/10.1177/01634437231210439>.
- Cihak, L.(2018). *Korean artists just got a pay raise from music streaming services*. *Digital Music News*. Retrieved (2026.03.04.) from <https://www.digitalmusicnews.com/2018/06/25/korean-music-streaming-royalties/>.
- CISAC(2021). *KOMCA press release: Best practice for establishing a transparent distribution system*. Retrieved (2026.03.04.) from <https://www.cisac.org/Newsroom/society-news/komca-press-release-best-practice-establishing-transparent-distribution>.
- Coase, R. H.(1960). The problem of social cost. *Journal of Law and Economics*, 3, 1-44.
- Conseil supérieur de l'audiovisuel(CSA)(2021). *Avis du 17 mars 2021 relatif au projet de décret relatif aux services de médias audiovisuels à la demande*. Retrieved (2026.03.04.) from <https://www.csa.fr/Reguler/Espace-juridique/Les-textes-adoptes-par-l-Arcom/Avis-de-l-Arcom-au-gouvernement/Avis-du-17-mars-2021-relatif-au-projet-de-decret-relatif-aux-services-de-medias-audiovisuels-a-la-de>mande.
- Cour des comptes(2023). *Le Centre national du cinéma et de l'image animée: Observations définitives, exercices 2011-2022*. Paris: Cour des comptes. Retrieved (2026.03.04.) from <https://www.ccomptes.fr/fr/publications/le-centre-national-du-cinema-et-de-limage-animee>.
- Cutolo, D., & Kenney, M.(2021). Platform-dependent entrepreneurs: Power asymmetries, risks, and strategies in the platform economy. *Academy of Management Perspectives*, 35(4), 584-605. <https://doi.org/10.5465/amp.2019.0103>
- Davis, S.(2021). What is Netflix imperialism? Interrogating the monopoly aspirations of the world's largest television network. *Information, Communication & Society*, 24(13), 1901-1919. <https://doi.org/10.1080/1369118X.2021.1993955>.
- European Audiovisual Observatory(2022). *Investing in European works: the obligations on VOD providers(IRIS Plus 2022-2)*. Strasbourg: European Audiovisual Observatory. Retrieved (2026.03.04.) from <https://rm.coe.int/iris-plus-2022en2-financial-obligations-for-vod-services/1680a6889c>.
- European Audiovisual Observatory(2023a). [FR] France: Draft decree on financial obligations of on-demand audiovisual media services. *IRIS: Legal Observations of the European Audiovisual Observatory*, 2023(6), 1-12.
- European Audiovisual Observatory(2023b). *Independent production and reten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European Audiovisual Observatory*. Retrieved (2026.03.04.) from <https://rm.coe.int/independent-producti-on-and-retention-of-intellectual-property-rights/1680af4fff>.
- European Composer and Songwriter Alliance(ECSA)(2025). *Audiovisual composers' contracts: Current practices, challenges and recommendations*. Brussels: European Composer and Songwriter Alliance. Retrieved (2026.03.04.) from <https://composeralliance.org/media/1772-ecsa-report-on-audiovisual-composers-contracts.pdf>.
- Farrell, J.(1987). Information and the Coase theorem.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1(2), 113-129. <https://doi.org/10.1257/jep.1.2.113>
- Frontier Economics(2024). *Stimulating screen production investment: Analysing the impact of key policies on the audiovisual sector*. Retrieved (2026.03.04.) from <https://www.frontier-economics.com/media/zqcdceog/stimulating-screen-production-investment.pdf>.
- Handke, C.(2016). Intellectual property in creative industries: The economic perspective. *SSRN Electronic Journal*. <https://doi.org/10.2139/ssrn.2773467>
- Hogan Lovells(2022). *France-New AVMS requirements and new media chronology-Final acts of an unusual reform*. Retrieved (2026.03.04) from <https://www.jdsupra.com/legalnews/france-new-avms-requirements-and-new-6396527/>.
- Hylton, K. N.(2006). Property rules and liability rules, once again. *Review of Law & Economics*, 2(2), 137-191. <https://doi.org/10.2202/1555-5879.1073>.
- Jang, C., & Kim, S.(2026). Factors influencing the export of cultural and artistic copyright in the Korean media industry. *Telecommunications Policy*, 50(1), 103078. <https://doi.org/10.1016/j.telpol.2025.103078>.

- Jin, D. Y.(2017). Rise of platform imperialism in the networked Korean society. *Asiascape: Digital Asia*, 4(3), 209-232. <https://doi.org/10.1163/22142312-12340079>.
- Kim, J. Y.(2023.11.01.). Korean producers shouldn't lose hope in Netflix battle, S&P researcher says. Korea JoongAng Daily. Retrieved from <https://www.koreajoongangdaily.com/entertainment/korean-producers-shouldnt-lose-hope-in-netflix-battle-sp-researcher-says/10917859>.
- Kim, W.(2025). Reconfiguring the global-local nexus: A comparative analysis of Netflix and theatrical film diversity in South Korea. *Convergence*, 31(2), 498-516. <https://doi.org/10.1177/13548565251393826>.
- Landes, W. M., & Posner, R. A.(2003). *The economic structure of intellectual property law*. NY: Harvard University Press.
- Legifrance(2021). Décret n° 2021-793 du 22 juin 2021 relatif aux services de médias audiovisuels à la demande(SMAD). *Journal officiel de la République française*. Retrieved (2026.03.04.) from <https://www.legifrance.gouv.fr/loda/id/JORFTEXT000043686721>.
- Medema, S. G.(2020). The Coase theorem at sixty.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58(4), 1045-1128. <https://doi.org/10.1257/jel.20191470>.
- Meyn, J., Kandziora, M., Albers, S., & Clement, M.(2023). Consequences of platforms' remuneration models for digital content: Initial evidence and a research agenda for streaming services. *Journal of the Academy of Marketing Science*, 51(1), 114-131. <https://doi.org/10.1007/s11747-022-00875-6>.
- Ministère de la Culture(2023). Chiffres clés 2023 de la culture et de la communication: Vidéo. Retrieved (2026.03.04.) from <https://www.culture.gouv.fr/espace-documentation/statistiques-ministerielles-de-la-culture2/publications/collectifs-d-ouvrages/chiffres-cles-statistiques-de-la-culture-et-de-la-communication-2012-2025/chiffres-cles-2023-de-la-culture-et-de-la-communication>. DEPS, Ministère de la Culture.
- Nguyen, T.(2022). *IP or not IP?: The relationship between Korean drama producers and global streamers post-Squid Game*. K7 Media. Retrieved (2026.03.04.) from <https://k7media.co.uk/streaming/ip-or-not-ip-the-relationship-between-korean-drama-producers-and-global-streamers-post-squid-game>.
- North, D. C.(1990). *Institutions, institutional change and economic performanc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Osborne Clarke(2021). *New levy obligations for audiovisual media services adopted in France*. Retrieved (2026.03.04.) from <https://www.osborneclarke.com/insights/new-levy-obligations-audiovisual-media-services-adopted-france>.
- Park, J. H., Kim, K. A., & Lee, Y.(2023). Netflix and platform imperialism: How Netflix alters the ecology of the Korean TV drama industry. *International Journal of Communication*, 17, 72-91. <https://ijoc.org/index.php/ijoc/article/view/18468>.
- Priest, E.(2021). The future of music copyright collectives in the digital streaming age. *Columbia Journal of Law & the Arts*, 45(1). <https://doi.org/10.52214/jla.v45i1.8953>.
- Tambini, D.(2025). The 'Netflix effect' revisited: OTT video, media globalization and digital sovereignty in four countries. *Telecommunications Policy*, 49(5), 102935. <https://doi.org/10.1016/j.telpol.2025.102935>.
- Towse, R.(2020). Dealing with digital: The economic organisation of streamed music. *Media, Culture & Society*, 42(7-8), 1461-1480. <https://doi.org/10.1177/0163443720919376>.
- UGGC Avocats(2021). *SMAD decree: Establishment of financing obligations for video-on-demand platforms*. Retrieved (2026.03.04) from <https://www.uggc.com/en/smad-decree-establishment-of-financing-obligations-for-video-on-demand-platforms>.
- U.S. Copyright Office(2025). *Identifying the economic implications of artificial intelligence for copyright policy: Context and direction for economic research*. Washington: U.S. Copyright Office. <https://www.copyright.gov/policy/artificial-intelligence/copyright-and-artificial-intelligence-part-3-generative-ai-training-report.pdf>.
- Williamson, O. E.(1981). The economics of organization: The transaction cost approach.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87(3), 548-577. <https://doi.org/10.1086/227496>.

※ AI 활용 방법 표기

연구의 핵심 아이디어, 분석, 해석 및 원고 내용을 저자들이 직접 검토·작성함.

Intellectual Property Allocation and Dynamic Efficiency in the Platform Era: A Coasean Perspective on Korea's Visual Media Sector

Je Hyun Bae*

MinSeop Yun**

Hyoung-Goo Kang***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how the initial alloca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IP) rights in global OTT platform-centered contracting structures affects the dynamic efficiency of the Korean audiovisual industry. Here, industrial efficiency is not understood in a static sense, but is instead defined as dynamic efficiency, operationalized in terms of creators' expected income, the possibility of recovering follow-up IP revenues, producers' asset accumulation, and the capacity to reinvest in subsequent projects. Methodologically, the study adopts a conceptual and comparative case-study approach, comparing three institutional arrangements: the AVMS-based regulatory model in France, the collective management model in the Korean music industry, and OTT-centered rights-concentrated contracting structures in the Korean audiovisual market. The analysis suggests that in platform environments characterized by high transaction costs and asymmetric bargaining power, the initial allocation of IP rights is not easily corrected through ex post negotiation. It further indicates that institutional arrangements featuring rights reversion, collective bargaining structures, and open channels for downstream revenue recovery tend to provide relatively more favorable conditions for creator incentives and producers' asset accumulation. Rather than directly testing the Coase theorem, this study uses it as an analytical benchmark to identify the conditions under which Coasean bargaining fails in platform environments and to examine the institutional devices that may mitigate such failure. On this basis, the study discusses several policy implications for the Korean audiovisual industry.

Key Words: Coase Theorem, Intellectual Property, Transaction costs, OTT Platform, Revenue Sharing, Dynamic Efficiency

* First Author, Ph.D Candidate, Dept. of Finance, Hanyang University, nubae2277@gmail.com

** Co-Author, Adjunct Professor, Dept. of Finance, Soongsil University, eandp@hanmail.net

*** Corresponding Author, Professor, Dept. of Finance Management, Hanyang University, hyoungkang@hanyang.ac.kr

· This article is published under the CC BY-NC license(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 It permits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provided the original author and source are credited.